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 2,11)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2주일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수난을 겪게 하시어 인류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주일 잔치에서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영원한 혼인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입당송** 시편 66(65),4 참조

- **제1독서**

이사 62,1-5

- **화답송** 시편 96(95),1-2ㄱ.2ㄴ-3.7-8ㄱ.9와10ㄱㄷ(◎3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 **제2독서**

1코린 12,4-11

- **복음환호송** 2테살 2,14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1-11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인 일치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여러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평온을 되찾고 치유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다양한 생활 방식의 여러 공동체와 살아가는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이가 피조물의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아캠] 2025년 아캠 총회

중 동 한 인
AKCCME 가 톨 리
공 동 체



- ▶ 대 상 : 회장단 및 각 공동체 여성 대표
 - ▶ 일 시 : 1월 25일 (토)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번호: 1004)
 - ▶ 안 건 : 신임 위원 소개, 회칙 리뷰, 연간 계획, 재정 보고, 신임 회장 선출 등
- ※ 대표 유고시,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참석해 주십시오.

'아캠 회칙' 개정 요청 접수

아캠 총회를 앞두고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칙'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으신 분은 1월 18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회칙은 아캠 카페(<https://cafe.dau.net/akcc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라비아 대목구] '니케아 신경' 세미나

우리는 주일마다 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기도 하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도 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장 오래된 신경이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의 결정 사항과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의 결정사항을 종합해 놓은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이 선포된 1,7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며, 올해 남아라비아 대목구에서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의 토대를 마련한 니케아 신경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봄으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 일 정 : 매달 세번 째 주일 15시 (1/19, 2/16, 3/16, 4/27, 5/18, 6/15, 7/20, 8/17, 9/21, 10/19, 11/16)
- ▶ 장 소 :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첫 번째 강의는 Paolo 주교님의 니케아 신경 소개로 시작합니다.

[UAE] '설' 명절 합동 위령 미사

- ▶ 아부다비: 1월 25일, 토요일 12:00, 성 요셉 성당 페리시 홀 (루와이스 / 바라카 포함)
- ▶ 두 바 이: 1월 26일, 주일 14:0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작은형제회] 2025 사제 서품식



- ▶ 주 레: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 ▶ 사제 서품: 한요한 요한
- ▶ 일 시: 1 월 13 일 (월) 15시
- ▶ 장 소: 대전 목동 성당



[산청성심원] 산청성심원 카페 조성을 위해 띄우는 편지

T. 평화와 선

안녕하세요. 산청성심원 수도원장 최종각 야고보 수사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당 신부님과 사목회장님, 사목위원들과 본당 신자분들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빵이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심원에서 살면서 하나하나씩 둘러보며 어르신들과 얘기하며 말씀을 듣고 성심원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를 여기 성심원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카페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직원들, 성심원 마을 주민들,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들, 화목 한의원에 내방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한 카페를 운영해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배고프지 않은 밀떡에는 못 미치지만 따뜻하고 성심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화덕에서 갓 구운 피자과 커피를 받아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자비를 청하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청성심원 수도원장 최종각 야고보 형제

후원: 농협 301-0170-1362-01 (재)프란치스코회 산청분소 / 문의: 055) 973-6966

[교종 프란치스코] 1월 기도 지향

1 월: 교육을 받을 권리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1> 성체 크기가 왜 달라요?

미사 후 한 학생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신부님 성체는 왜 커요?**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작은데?**”

성체 크기가 다른 것이 몹시 궁금했나 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세례를 받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성당에 모여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데 성전 앞에서 뒤까지 신자들이 많잖아? 그런데 작은 제병을 사용하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자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신자들까지 잘 볼 수 있게 하려고 큰 제병을 사용하는 거야.** 그런 이유로 신부님이 큰 성체를 드는 거고, 큰 성체를 쪼개서 모시는 거야.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기 **좋도록 적당한 크기의 작은 성체를 준비** 하는 거란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성찬 전례 때 보니까 신부님이 큰 성체를 반으로 똑 자르시는데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잘라도 되는 건가요?**”

“미사를 주례할 때 신부님이 성체를 쪼개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성체에서 떼어낸 작은 조각을 성혈에 넣는 것은 몸과 피가 합쳐짐, 즉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다. 또 예수님이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있단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니, 놀라워요!” 그러더니 학생이 갑자기 손을 포갰다, 떼었다 하면서 “**성체는 왜 왼손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오른손으로 받아서 모시면 안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나 봅니다.

저도 미사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손으로 성체를 받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헛갈려 멍칫하며 눈치를 살피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야, **교황청에서 나온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관한 공지를 보면** 해답이 나온단다. 축성된 성체를 왼손으로 받아들고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서 입으로 모셔와 영하도록 공지를 하고 있지. 초대 교회 때부터 **‘왼손을 왕좌, 임금의 자리로 만들어서 오른손으로 그 임금을, 그 성체를 집어서 모신다는 내용’들이 초기교회의 문헌 안에서 전해지고 있단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오른손을 아래로 받치고 그 위에 왼손을 올려, 왼손으로 성체를 받고 오른손으로 성체를 조심스럽게 입으로 모셔와 영하는 거란다.”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아래로’하며 콧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또 와서 묻습니다.

“미사 때 **복사 선 형은 신부님이 큰 성체 쪼개신 것을 주시던데 왜 나는 작은 성체를 줘요?**” 궁금해하는 눈빛이 몹시 귀엽습니다.

“성체는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 다 똑같은 거란다. 그런데 신부님이 미사 성찬 전례 때 큰 성체를 쪼개시잖아? 큰 성체를 영하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여러 조각이 나오지? 신부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날 전례 봉사하는 신자, 특별히 기도해드려야 할 신자, 또는 병으로 아파하는 신자들한테 영하게 해드리는 거란다. 왜 너도 큰 성체 모시고 싶니?”

“네”하며 뛰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그럼 너도 복사나 전례 봉사해!”라고 소리쳐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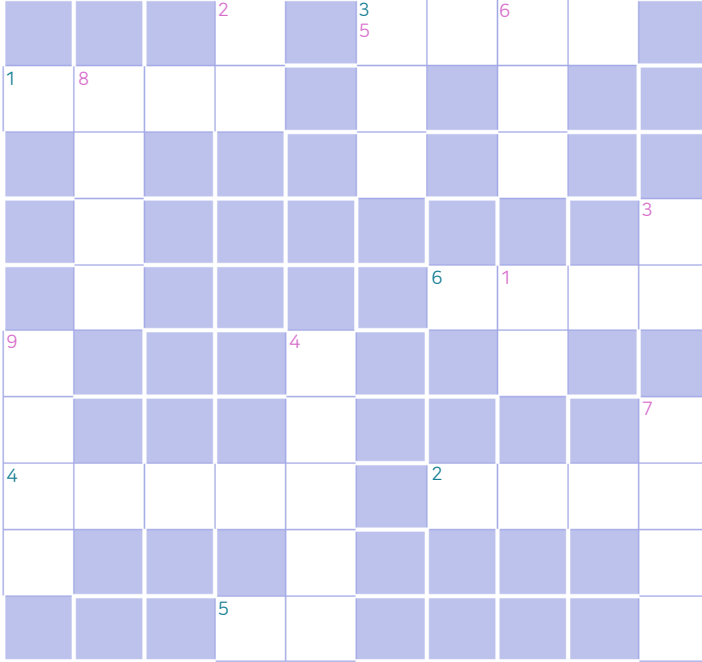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 기억할 것

축성하지 않은 밀떡은 ‘제병’이라 하며,
축성하면 ‘성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가로 세로 낱말 퀴즈



< 가로 퀴즈 >

- “○○ ○○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레오 13세 교황)
- 할러윈은 교회 축일에서 나온 날로, ○○ ○○ 대축일 전야를 뜻한다.
-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오게 된 마을 이름.
- 산타 클로스의 원조인 튀르키예의 니콜라오 성인을 일컫는 네덜란드어인 이 말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산타클로스가 되었다.
- 유럽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전승을 따라 6세기 마고스(동방 박사)를 왕으로 추대해 ○○이라 불렀다. Three kings.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 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임을 분명히 고백하도록 하는 미사의 공식 신경이다.

< 세로 퀴즈 >

- 11월 2일. 천국에 들어가기 전 정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 유일하게 미사를 세 번 봉헌할 수 있다. ○○의 날.
- 연옥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이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이다.
- 교황청이 정한 2025년 희년 공식 마스코트 이름. ‘빛’이라는 뜻을 가짐.
- 비오 11세 교황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알리기 위해 회칙 ‘처음의 것(과스 프리마스)’를 통해 제정, 현재는 연중 마지막 주일에 기념하고 있다. ○○○○○ 대축일.
- 2024년 12월 24일, 성 ○○○ 대성당의 성문이 열리며 2025년 정기 희년이 개막되었다.
-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전례.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로 시작되는 입당송 첫 단어에서 유래.
- 성모 마리아께서 주님 탄생 예고를 받고 유다 산악 지방의 사촌 엘리사벳의 동네인 이곳을 방문했다.
- Epiphany.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이 공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 ○○ ○○ 대축일.
-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신경으로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한 로마 교회의 신경. 12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 응모 방법 및 마감

: 1월 22일 정오(UAE 기준)까지 아캠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ID : ellajoy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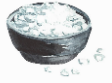
※ 정답 및 정답자/당첨자 발표

: 198호(다음주) 아캠 주보에 공지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퀴즈 참고 주보: 185호 ~ 196호

소금 한 꼬집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일** 때,
우리도 하느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 김보연 안젤라 (055. 360. 0733) (054. 396. 1010)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